

코오롱, 중국 수처리 시장 진출

Sichuan수도공사와 협력 MOU ... 29년간 하루 10만^m 상수도처리

코오롱이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국 물 시장에 진출해 주목된다.

코오롱(대표 이용열)의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(EFMC)와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는 중국 Jiangsu의 Siyang에서 중국 물기업인 Sichuan수도공사와 Siyang의 상수도 공급관리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.

양사는 협약에 따라 Siyang으로부터 하루 10만^m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인수받아 현지법인을 통해 29년간 수돗물의 생산-공급-요금고지-수납 등 수돗물 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한다.

중국 상하이(Shanghai)에서 북서쪽으로 약 380km 떨어진 Siyang은 인구가 100만명 수준으로, 최근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물 부족 및 수질 문제 등이 심각해 시설의 운영 효율화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코오롱 관계자는 “논산시 등 18개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의 운영효율 개선을 위해 시설물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K-water와 국내 600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EFMC가 함께 참여하는 Siyang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 물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5/12>